

정동영 장관 “경주 APEC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윤호덕 의원의 APEC 정상회의 도중 북미 정상회담에 예상 장소에 대한 질의를 들은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외통위 국감서 밝혀…“트럼프 결심에 달려…장소는 판문점 유력”
이 대통령 ‘E.N.D 이니셔티브’ 중심 남북 대화·교류 복원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날 말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윤호덕 의원의 질문에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면서 “평화공존을 주제로 얘기한다면 만날 생각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금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하

에서 핵 무력을 과시했다”며 이런 정황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2018년에 남북·북미대화에 임했듯, 이번에도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과시한 이후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2025년 10월 10일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데자뷰’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가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질문에는 “제재 그리고 대북 강압 정책 속에서 핵 능력은 고도화되고 키워졌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제재 무용론을 거듭 꺼낸 것이다.

그는 또 “정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새기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평화의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되게 실천해나갈 것”이

라며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가 교류(Exchange), 관계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포괄적 대화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구상을 중심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안내하고, 한반도 평화 진전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통일부는 국민참여, 국론통합의 대북·통일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께서 공감하고 지지하는 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간 통일부는 지난 정부 시기 사실상 해체된 남북대화·교류 기능의 복원을 추진해왔다”며 “통일부 본연의 조직과 기능을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정진욱 “고사 위기 태양광 업체 구제 시급”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양광발전 산업 죽이기’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동남갑)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에 고사(枯死) 위기에 처한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의 구제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 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태양광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은 지난 2014년 태양광 직접 생산 기준 고시 이후 10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지난 2023년 5월 조달청이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 후 중기부는 32개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업체당 최소 3~4개 이상



의 징벌적 행정처분을 중복해서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아례적인 행정처분은 윤석열 정권 당시의 이도 전조달청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임시 이뤄졌다”면서 “그 이후에 태양광 업체들의 고난의 세월이 시작됐는데 이는 윤석열 정권 차원의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죽이기의 일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새로 들어선 상황에서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중기부는 태양광 발전장치 업계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고 여전히 손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조인철 “스팸 문자 과태료 징수율 3.2% 그쳐”

최근 불법스팸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서구갑) 국회의원이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팸 문자 탐지 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3억6147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7억 건을 넘어섰다.

불법스팸 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할 과태료는 490억원이 쌓였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징수율은 3.2%에 그쳐 16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체납액 중 76%가 10년 이상 장기 체납분으로, 실질적인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불법스팸에 대응하는 인력·예산도 제자리인 실



정이다. 방통위의 불법스팸 대응 예산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2억원 수준으로,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인력 또한 2021년 19명에서 작년 부터 18명으로 줄어, 폭증하는 불법스팸 신고를 감당하기 어렵다.

조인철 의원은 “불법스팸은 국민에게 도박, 투자유도, 사칭, 성매매 등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라며 “그간 대응이 부족했던 만큼 새로 시작하는 방미통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금주 “농협재해보험, 농협 수익 도구 전략”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재해보험은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가 아니라, 농협의 수익 도구로 전략했다”며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과 ‘농어업재해대책 기금’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재해보험에 투입된 총 예산은 5조8119억원으로, 이 중 4조7000억원이 세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 정부 지원금(국비)은 2조8245억원, 지방비는 1조9300억원, 농가 자부담은 1조57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체감하는 보상은 여전히 미흡하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45%에서



2024년 54.2%로 5년간 고작 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 결국 농민의 부담은 늘고, 보상은 제자리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을 위탁 운영하는 농협의 수익 구조다. 지난 5년간 농협의 보험료 수입은 5조8119억 원, 보험금 지급은 4조9650억원으로, 단순 계산만으로도 8400억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이대로는 농민의 생존권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與 “한덕수 내란 공모 드러나 구속 마땅”

내란 공모 규탄 기자회견…“CCTV에 적극 가담 정황”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화로(CC)TV가 공개되자 “내란 공모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사법부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처벌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틀째인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10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날 법원에서 공개된 CCTV 영상과 관련, “윤석열과 한덕수가 서류를 주고받고 또 웃고 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국민에게 보여졌다”며 “내란 공범 한덕수씨는 계엄에 관한 어떠한 지시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CCTV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반

문했다.

정 대표는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이제 응당한 심판과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기만 하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 앞으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CCTV에는 윤석열 지시문을 손에 들고 대통령 집무실을 나서는 한덕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았다. 심지어 그 순간 그는 웃고 있었다”며 “계엄에 적극 가담하고 실행한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록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물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